

국별 리포트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0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70,98천 km ²	G D P	12,290억 달러(2009년)
인구	141.4백만 명(2009년)	1 인 당 G D P	8,660 달러(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Russian Ruble
대외정책	미국의 일방 독주 견제, 자국 역할 증대 방안 모색	환 율(달 러 당)	30.50(2009년)

- 세계 최대의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세계적인 과학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임.
- 1991년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 1998년에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나,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8년까지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기록했음.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로 BRICs 국가 중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2009년 말 이후 더딘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분야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불투명한 제도, 만연한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7.7	8.1	5.6	-7.9	4.3
재정수지/GDP	7.4	5.4	4.1	-5.9	-3.9
소비자물가상승률	9.7	9.0	14.1	11.7	6.4

자료: IMF, EIU

□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 전망

- 러시아는 고유가, 해외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2003~07년 5년간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지속했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2009년에는 2000년대 들어 최초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다만, 2009년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유가 상승 및 원자재 수출 증대로 2분기에 저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됨. 2009년 3분기와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8.9%, 3% 하락하는 데 그쳐 2009년 1분기 -9.8%, 2분기 -10.9%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었음.
- 2010년에는 유가 회복 및 정부의 부양정책 효과 가시화 등에 힘입어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010년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9%, 2009년 4분기 대비 0.6%를 기록하는 등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5월 산업생산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12.6% 상승하는 등 2010년 하반기 경기 회복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산업생산증가율 : -17.1%('09. 5.) → 2.7%('09. 12.) → 12.6%('10. 5.)
 -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일부 기업들이 자금 부족 문제를 겪는 등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 러시아는 오일달러 대량 유입,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인해 2006년부터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1%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세계적인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2008년에는 14.1%를 기록해 소비자물가 급등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음.
-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감소, 해외자본 유입 감소 등 전년 대비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었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유가 상승세로 인해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음.
- 2010년 들어 물가상승률은 루블화 강세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5월에 1998년 7월 이래 최저치인 6%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2010년 수치는 2009년의 절반 수준으로 전망됨.
 - 하지만 2010년 8월 3일 현재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 등지의 극심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으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9월물 밀 가격은 7.11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러한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경우 밀 가격이 사료 가격에 반영되어 식료품 가격이 인상되거나, 타 곡물 가격이 연쇄적으로 급등할 수 있어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상승 전망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와 정부의 에너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석유수출세 인하 조치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자를 적립기금(Reserve Fund)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임.
 - 적립기금 현황: 406억 달러(2010년 4월 말 현재)
 - 2010년 4월 러시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5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음.
 - * 만기 5년물 국채 스프레드(20억 달러) : 125 bp
 - * 만기 10년물 국채 스프레드(35억 달러): 135 bp

- 2010년에는 세입 6조 9,500억 루블, 세출 9조 8,869억 루블 규모, GDP 대비 6.8% 수준의 적자예산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고유가로 인한 세입 증가로 재정적자 목표 수준을 GDP 대비 5.4%로 수정했음. 2011년에는 강력한 긴축재정을 도입해 재정적자폭을 더욱 축소할 계획이나, 2011년 총선 및 2012년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재정적자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 · 정책

□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경제구조

-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전반이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임.
 - * 에너지 산업 의존도: 총수출의 57%, GDP의 약 21%, 재정수입의 약 48%
- 2008년 상반기까지는 고유가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2009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반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로 에너지 수요 및 원유 수출이 감소해 경상수지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고 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10년 들어 고유가로 에너지 수출 및 관련 세입이 증가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취약한 경제구조 개선이 필요함.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 러시아는 원유, 가스, 석탄,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도 1억 4천만 명에 달해 내수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또한 2009년 기준 GDP규모가 1조 2,29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임. (IMF에 의하면, 2008년의 8위에서 하락)
 - * 원유(2009년 말 현재): 확인매장량(742억 배럴) 세계 7위, 생산량(연간 4.9억 톤) 세계 1위
 - * 천연가스(2009년 말 현재): 확인매장량(44.4조 m³) 세계 1위, 생산량(연간 5,275억 m³) 세계 2위

□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 현대화 정책 추진

- 러시아가 2008년 하반기 세계 경제 위기를 경험한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과도한 원자재 분야 의존 및 산업경쟁력 부족이라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모든 생산영역에서의 현대화와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음.
- 경제 현대화는 5대 전략산업에 대한 중점육성과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음.
 - 5대 전략 산업: 에너지 효율화(신 연료 개발 등), 원자력 기술, 우주 기술, 의료기술(진단장비 및 의약품 포함), 전략정보기술(슈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 러시아 정부는 현대화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과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러시아 경제의 현대화 및 기술발전에 대한 대통령위원회'와 '하이테크 및 혁신을 위한 정부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009~10년 약 47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 2009년 100억 달러 이상, 2010년 368억 달러(정부예산의 10% 이상 규모)
- 러시아 정부는 R&D에 종사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모스크바 외곽의 스킨코보(Skolkovo) 지역에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이 단지에는 에너지, 정보통신, 전자통신, 생의학, 원자력 기술 등 5개 분야의 연구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며, 러시아 정부는 동 프로젝트의 1단계 비용으로 3억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 그러나 파격적인 세제 혜택(향후 10년간 지대, 부가가치세, 수익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하고, 부정부패 및 자의적인 법 집행 만연 등 투자환경이 악화된 상태임. 또한 첨단산업 단지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오일머니 적립을 통해 재정적자 충당

-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락에 따른 경제충격에 대비코자 2002년부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세 수입과 연방예산 잉여금으로 석유안정화기금(Stabilization Fund)을 적립하고 있음.
- 2008년 2월 석유안정화기금을 적립기금(Reserve Fund)과 국부기금(National Welfare Fund)으로 분리, 적립기금은 대외채무 상환과 재정부족에 충당하고, 국부기금은 정부 개혁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음.

* 석유안정화기금(Stabilization Fund) 현황(2010. 4.) : 1,286억 달러
(Reserve Fund 406억 달러, National Welfare Fund 880억 달러)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94,686	77,768	103,722	48,971	81,540
경 상 수 지 / GDP	9.6	6.1	6.2	4.0	5.2
상 품 수 지	139,269	130,915	179,742	111,585	152,516
수 출	303,550	354,401	471,603	303,388	382,708
수 입	164,281	223,486	291,861	191,803	230,192
외 환 보 유 액	295,277	466,376	410,695	405,825	491,448
총 외 채 잔 액	250,746	368,075	402,453	448,700	456,300
총 외 채 잔 액 / GDP	19.6	25.3	26.6	41.9	35.2
D . S . R .	13.8	9.2	11.5	11.7	12.8

자료: IMF, EIU

□ 고유가로 인한 총수출 증가, GDP 대비 총수출 비율은 다소 하락

- 2008년까지는 총수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원유 및 가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매년 연 20~30%대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해 왔으나, 2009년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해외 에너지 수요가 감소해 총수출이 2008년 대비 35% 가까이 감소했음.

- 2010년에는 세계 에너지 수요 회복 및 고유가로 총수출이 다시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 우랄산 유가 추이(U\$/배럴): 131.29('08. 6월말) → 34.81('08. 12월말) → 68.39('09. 6월말) → 72.08('09. 12월말) → 77.99('10. 7월말)
 - * EIA 국제유가 전망(U\$/배럴): 79(2010년 말), 84(2011년 말)
- 2010년 총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출 증가액보다 GDP규모 확대가 더 커 GDP 대비 총수출 비율은 2009년 수치보다 다소 하락했음.

□ 경상수지 흑자폭 증가세로 반전

- 2008년까지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된 데 힘입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출 감소가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져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됨.
- 2010년 들어 1분기 경상수지가 339억 달러(2009년 1분기: 9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크게 증가했고, 무역수지도 2010년 1분기 460억의 흑자를 시현해 전년 동기의 190억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됨. 이러한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되어 상품수지가 1,52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액 증가세 회복

- 2002년 441억불에 불과하던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2008년 8월 초에는 5,9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2008년 8월 이후 그루지야와의 전쟁 발발 및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 및 은행의 외채상환 지원을 위해 보유외환을 소진함으로써 2008년 하반기 중 외환보유액이 급격하게 감소했음.
-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009년 1월말 3,869억 달러를 기록해 2008년 8월 초 대비 35% 감소했으나, 2009년 초부터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꾸준히 회복되어 2010년 7월말 현재 4,69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총외채잔액은 보합세 유지

- 2009년 총외채잔액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6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경기침체로 수출과 GDP규모는 급감함으로써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및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음.
- 2010년 총외채잔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GDP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및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09년 11.7%에서 소폭 상승한 1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 체제의 안정적 유지

- 2008년 5월 푸틴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으로, 푸틴 자신은 총리로 취임했으며, 현재까지는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경제현대화를 강조하는 등 과거 푸틴이 추구했던 정책과 차별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두 지도자의 공개적인 권력투쟁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거의 없으며,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12년 예정되어 있는 대선 후보 결정 문제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임.

□ 집권여당의 의회 장악으로 정국 안정

- 2007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당시 푸틴 대통령이 이끌었던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이 전체 의석 450석 중 64.3%인 315석을 차지해 정국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 2010년 3월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은 지방의원 8석 중 8석, 시장직 5석 중 4석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나, 지지율은 2008년 지방선거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실업률은 다소 높은 수준이나 사회불안 가능성 낮음

-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간·지역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급속히 늘어났음. 2009년 2월 9.4%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2010년 상반기 중 8%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임.

* 실업률 : 5.4%('08. 5월말) → 9.4%('09. 2월말) → 8.1%('09. 7월말) → 7.3%('10. 5월말)

-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9년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금, 공공부문 급여 및 실업자 보호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수준은 유지하고 있어 경제난으로 인한 대규모 사회불안 가능성은 낮음.

□ 국지적인 소요사태 발생 지속

- 러시아에는 현재 주도적인 야당 세력이 없어 현 정권을 위협할 만한 대규모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유일한 야당세력인 러시아 연방 공산당(CPRF)의 세력은 미약하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도 친정부 성향임.
- 2010년 3월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는 경찰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었으나 추가적인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테러조직에 대한 엄정한 처리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북코카서스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개선을 통해 반정부세력을 무력화하는 강온 양면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8월 발생한 그루지야와의 전쟁으로 분쟁지역인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자치공화국내 치안불안 요소가 상존하나 이는 국지적 불안에 그칠 전망이다.

3. 국제관계

□ 미국, EU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

- 2009년 9월 미국의 폴란드, 체코 전략미사일방어기지(MD) 구축계획 중단 선언에 이어, 2010년 4월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09년 12월 만료된 전략적 핵 감축 조약(START 1)을 대체하는 신조약을 체결해 부시 대통령 시절 냉각되었던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음.
- EU와도 공동관심사인 에너지안보, 과격주의 세력 척결 및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0년 6월에는 신기술, 혁신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음.

□ 중국과의 협력 강화

-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공동의 목적 하에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는 특히 아시아 지역까지 에너지 수출 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CIS 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 모색

- 구소련 국가에 대해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를 중심으로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역내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음.
- 2009년 가스 대금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던 우크라이나와는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집권에 따라 관계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7월 발효된 벨로루시와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2008년 하반기 이후 신용평가기관의 러시아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외환보유액 급감, 유가 하락 및 대규모 자본유출 등을 이유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음.
- OECD는 2009년 10월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하향 조정했는데, 2010년 1월 회의에서도 자본유출 기조 지속, 국제유가 등락에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문제 등을 이유로 4등급을 유지했음. S&P(2008년 12월), Fitch(2009년 2월)도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 바 있음.
- * Moody's는 2008년 12월 기존 등급(Baa1)을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로 변경함.
- 다만, 2009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S&P와 Fitch는 각각 2009년 12월 및 2010년 1월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조정했음.

* 주요 평가기관의 러시아 국가 신용등급 현황

- OECD : 3등급 (2009. 1.) → 4등급 (2009. 10.) → 4등급 (2010. 1.)
- Moody's : Baa2 (2005. 10.) → Baa1 (2008. 7.) → Baa1 (2010. 7.)
- S&P : BBB (2005. 12.) → BBB+ (2006. 9.) → BBB (2008. 12.)
→ BBB (2010. 7.)
- Fitch : BBB (2005. 8) → BBB+ (2006. 7) → BBB (2009. 2.) →
BBB(2010. 7.)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제한적 인수 가능
- ECGD : 중단기 인수 가능
- Hermes :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정부채무 조기상환

- 2005년 1월 IMF 대기성차관 33억 달러를 조기 상환했으며, 2005~06년 2년에 걸쳐 파리클럽채무 430억 달러도 전액 조기 상환함에 따라 IMF 등으로부터 추가 차관을 받을 가능성은 낮음.

□ 외채구조 개선 전망

- 2008년 하반기 중 루블화 안정과 기업 및 은행의 대외채무 상환 지원을 위해 대량의 보유외환을 투입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이 6개월 만에 3분의 1 가량이 소진되었으나, 2009년 중 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0년 7월 말 현재 4,69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외채 상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들어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총외채잔액 수준은 2009년 4,487억 달러와 유사한 4,563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외채구조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러시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10. 6.	주요품목
수 출	8,088	9,748	4,194	2,974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수 입	6,977	8,340	5,789	4,956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합 계	15,065	18,088	9,983	7,930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1990. 9. 30 (북한과는 1948. 10. 12 수교)

□ 주요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원자력협력협정(이상 '99), 에너지분야협력협정('00), 관광협정('01),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협정('04), 가스산업협력협정('06), 비자협정('08)

□ 2010년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세

- 양국은 1990년 9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2008년 기준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180억 달러를 기록함.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교역규모는 99.8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10년 6월 말 현재 79.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8위 수출상대국, 12위 수입상대국임.(2010년 6월 말 현재)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및 무선통신기기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임.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유지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2010년 3월 말 기준 14.7억 달러(384건)로, 2006년 이후 연도별 투자금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연도별 투자금액: 1.1억 달러('06년), 2.3억 달러('07년), 3.6억 달러('08년), 4.3억 달러('09년)

V. 종합의견

- 러시아는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최초로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에너지 수출이 총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등 유가의 향방에 경제가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 체제 하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도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 및 EU와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고 중국과의 협력관계 또한 강화되고 있음.

- 2008년 하반기 중 외환보유액 급감, 유가 하락, 대규모 자본 유출 등을 이유로 국제 주요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신용등급 전망을 다시 상향조정하는 추세임.

책임조사역 허정욱 (☎02-3779-6653)
E-mail : johuh@koreaexim.go.kr